

## 갈등치유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윤재근\* · 김영주\*\*  
대진대학교

---

### 【요약】

---

한국사회에서의 갈등은 주로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 주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인지 갈등관리라는 것이 주로 행정/제도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갈등은 욕망을 지닌 인간이 가지는 감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내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정/제도적 접근은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갈등은 내면의 갈등상황이 외부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갈등은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 갈등을 치유 가능한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종교수행을 통한 영성함양이 요구된다.

신종교는 기성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의식과 세계관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신종교운동이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갈등양상과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갈등과 치유라는 큰 틀에서 '갈등치유'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갈등치유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증산의 갈등해석을 살펴보고, 갈등치유를 위한 수행으로서 대순진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훈회와 수칙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갈등치유, 종교교육, 훈회, 수칙

---

### I. 들어가며

갈등(葛藤)은 삶을 영위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요소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

---

\* 제1저자: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교신저자: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다양한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압축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축적되어 왔다. 특히 IMF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현상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계급양극화 현상으로 전개되어 빈곤과 부의 세습화를 양산, 새로운 갈등구조를 생성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전개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수행되어 오고 있지만,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관리의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적 영성함양을 통한 갈등 조정 내지 갈등 제어와 관련한 ‘갈등치유’를 논의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가진 존재이다. 욕망과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갈등이다. 욕망의 교차점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갈등상황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얻은 자든 잃은 자든 할 것 없이 그 과정과 결과에서 많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갈등 자체가 상처인 셈이다. 그렇게 보면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갈등해결이라는 용어자체가 어찌 보면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표현인 듯하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갈등을 방지하는, 그리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배양을 통해 갈등을 치유 가능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갈등관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갈등관리를 행정/제도적인 관점에서 부패규제, 규제의 질적 수준 등 정부의 효과성 위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sup>2)</sup>

갈등관리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갈등양상을 관리할 수 없다. 갈등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요인들이 더 큰 동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 배양을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경제적 불균형을 축으로 다양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갈등사회이며, 이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경제적 불균형은 단순히 분배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세대, 교육, 젠더, 이념 등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갈등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관점을 달리하면, 경제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회갈등은 해소 내지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1) 유희정·이숙중,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7집 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6), 40쪽.

2) 정영호·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221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46쪽 표 1 참조.

사회갈등은 대수롭지 않은 ‘어떤 현상’쯤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그래서인지 사회갈등은 해결 내지 해소 가능한 어떤 것쯤으로 진단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은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갈등과 치유라는 큰 틀에서 ‘갈등치유’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였다. 첫째, 갈등의 원인을 종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해 대순진리회의 입장을 밝힐 것이며, 둘째, 갈등치유와 관련해서 훈회와 수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갈등치유는 현재의 삶 속에서의 실천이 요청되는 바, 본 연구자는 종교수행을 종교의 본질적 측면과 연결시켜 종교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종교적 실천의 중요성과 수행함에 있어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 II. 현대사회의 갈등요인과 갈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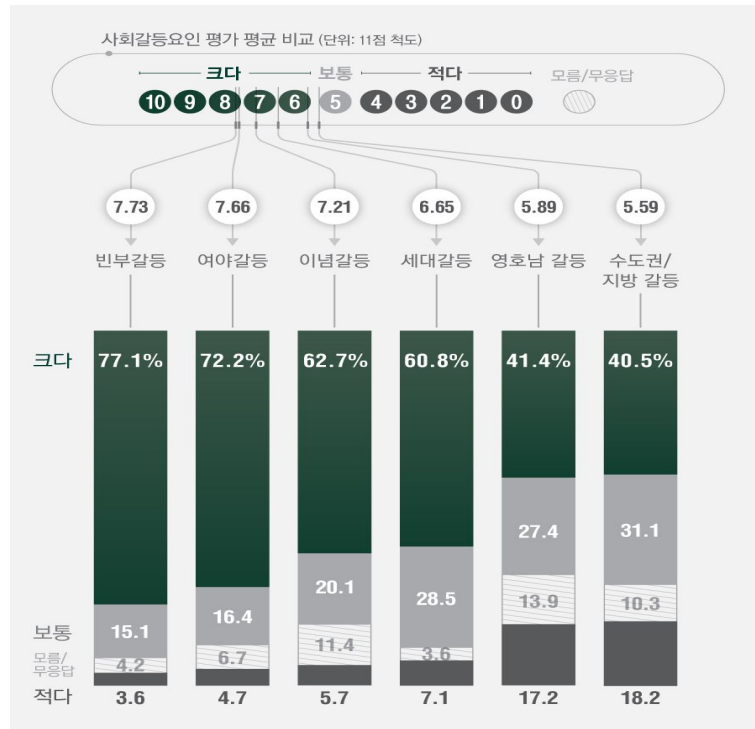
현대사회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왔던 갈등과 타협, 소통과 조정을 통하여 안정화된 구조이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제도나 법에 의해 정착되어진 관습, 부와 가치의 분배구조, 사회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 분담 등은 오랜 세월 이루어진 타협과 조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와해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규범의 적절한 통제 하에서 이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의 이면에 성장위주의 발전 전략에 의해 미뤄졌던 여타 사회문제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된 시기이다. 급격한 불균형 성장이라는 파행적 과정을 통해 잉태된 불평등은 노동, 지역, 교육, 세대 등 사회제 분야에 걸쳐 계층갈등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sup>3)</sup> 1960년대 ‘한강의 기적’은 압축적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IMF 이후 발생한 중산층의 붕괴는 우리사회에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켜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였다. 물론 양극화라는 것이 한국사회에서만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소득 양극화가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 이념, 주택, 의료, 저출산 등의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 증폭되어 공고한 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서문기,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계층갈등」, 『국제지역연구』23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31-32쪽.

다음의 표는 우리국민이 느끼고 있는 갈등요인에 관한 것이다.

〈표 1〉<sup>4)</sup>



위의 표를 보면 우리국민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갈등요인이 빈부갈등, 여야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임을 알 수 있다. 정치 경제적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갈등지수가 낮게 평가된 지역 갈등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영호남 갈등의 경우는 다소 진부한 감이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구도는 부동산, 교육, 취업 등과 연계해서 체감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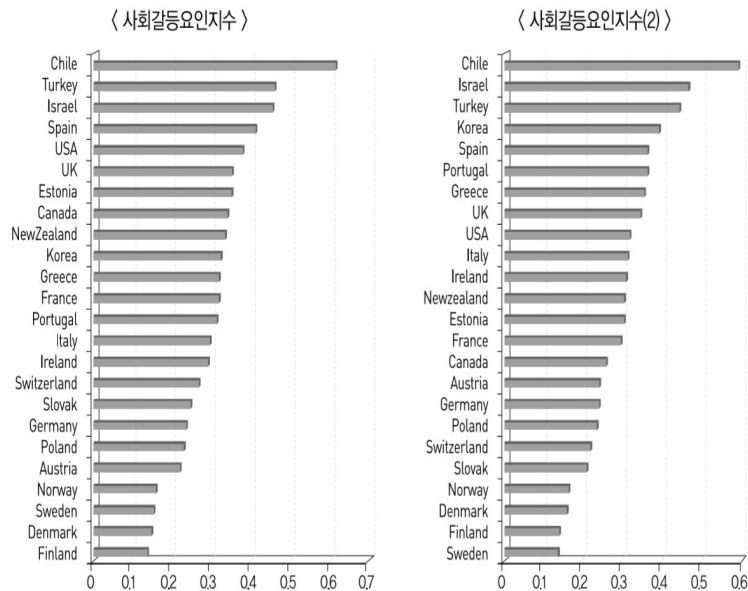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초래할 문제는 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양극화는 진행형으로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며,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양극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갈등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갈등, 조직 내 갈등, 국가 간 갈등, 부부갈등, 이념갈등, 빈부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모든 것에 갈등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성립될

4)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 2013. 7.31.

정도이다. 2015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갈등수준은 높게, 국민통합수준은 낮게 인식하고 있다’<sup>5)</sup>는 발표는 이를 대변하고 있다.

갈등요인은 너무나도 많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시스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구조가 갈등구조인 셈이다. 그래서인 사회갈등지수와 관련한 OECD의 통계자료는 한국사회가 처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표 2〉<sup>6)</sup>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가 사회갈등문제이며, 2011년도에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갈등요인지수가 산출되었던 바, 한국의 경우 사회갈등요인지수에서 10위, 사회갈등요인지수(2)에서는 4위를 기록하였다. 사회갈등요인지수는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sup>7)</sup> 이 중 한국사회의 갈등양상은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갈등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족문화 갈등지수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사회갈등요인지수(2)가 10위라는 부분이다.

2009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2020년에

5) 유희정·이숙중,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미치 관리에 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17집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6), 40쪽.

6) 정영호·고숙자, 앞의 글, 47쪽.

7) 위의 글, 47쪽.

5.0%, 2030년에는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구나 국내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2050년에는 이주 외국인의 비율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sup>8)</sup> 이는 문화와 언어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갈등상황이 증가함으로 인해 사회갈등요인지수(2)의 순위 또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증명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정책 수립과 실천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던 관계로 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지 못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현장에서도 수평적 이기보다는 수직적인 분위기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은 물론 이념 사이의 대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는 이성적인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수직적·위계적·대립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sup>9)</sup>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법·제도적 대안들이 적실성을 갖추려면,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부터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sup>10)</sup> 이는 사회갈등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갈등관리 역량은 핵심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갈등조정비용이 연간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사회적 갈등지수를 선진국인 G7의 수준으로 낮출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을 0.3%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sup>11)</sup>고 한 내용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갈등은 이제 현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일반화된 결론은 아직도 요원하다. 갈등의 발생 원인이 부의 분배문제에서부터 이념적 지향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집단, 국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한편, 사회갈등은 내재되어 있던 부패, 비리, 차별 등을 열린 공간으로 이끌어내어 사회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며, 나아가 보다 발전된 사회를 위한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갈등관리 역량은 중요성을 더해간

8)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92쪽.

9) 오창우, 「한국에서의 사회갈등 논의의 의미연결망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45호 (서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39쪽.

10) 위의 글, 41쪽.

11) YTN, 〈사회적 갈등 비용 연간 최대 246조원… 소통과 승복이 중요〉, 2017.3.7. 인터넷판.

다. 사회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회는 그 사회의 갈등상황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 에너지로 발현되어 사회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갈등관리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회는 방치된 갈등이 대립과 분쟁 등으로 이어져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갈등은 파괴적이고 병리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가.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치밀한 고민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III. 증산의 갈등 해석과 상극지리(相克之理)

신종교는 기존 사회와 종교에 대한 비판 의식을 근간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동한 새로운 차원의 종교로서, 기성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의식과 세계관을 표방한다.<sup>12)</sup> 여기에는 신종교운동이 사회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이 담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갈등 양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이 활동하였던 조선후기는 누적된 폐습의 고착화와 서학을 비롯한 외래사조의 유입으로 대표되는 시기로 양란 이후 조선사회가 가졌던 총체적 모순이 심각하게 드러나던 시기였다. 정치적 분당과 쟁송, 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심각한 국정의 문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틈탄 목민관들의 횡포는 민중들의 삶을 궁핍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하였다.

격동기의 조선후기 사회에서 민중들의 중심에서 그들의 삶을 직시하였던 증산은 당시의 사회를 ‘진멸지경’으로 설명하였으며,<sup>13)</sup> 질곡의 삶 속에서 고통 받던 민중들에게 종교적 구제를 통한 삶의 희망을 제시해주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타의 신종교사상가들과 구분되는 천지공사라는 독특한 형태의 종교운동으로 전개되어 나타난다.<sup>14)</sup>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

12) 박규태, 「일본의 현대종교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신종교연구』제3권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0), 29쪽.

13)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해석하지 않으리오.” 『전경』, 교법1장1절; 본 논문의 논의는 대순진리회의 『전경』 (대순진리회교무부,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예를 들면, ‘『교법』1장1절’의 경우 ‘교법1-1’의 형식으로 그 전거를 밝힌다.

14) 윤재근, 「조선후기 종교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석」, 『종교교육학연구』제1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264-265쪽 참조.

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공사1-3)

위의 구절 전반에 흐르는 기조는 세상 자체가 심각한 병증에 매몰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증산 화천 후 발견된 ‘병세문’<sup>15)</sup>은 심각한 병증과 관련해서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증산은 천하가 병들게 된 원인을 충효열을 비롯한 윤리도덕이 무너진 것에서 찾고 있으며, 세상의 기본적 윤리가 상실되어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무도의 질병으로 진단하고 있다.<sup>16)</sup> 무도한 세상은 인간의 일상적인 감정인 욕망에 기인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sup>17)</sup>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면 병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며,<sup>18)</sup> 그로 인해 원망의 감정들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갈등이다. 증산은 ‘갈등’을 한 곳에서만 언급한다.<sup>19)</sup> 그러나 여기서의 갈등 양상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없이도 다양한 갈등 양상이 발생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갈등은 시공을 불문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조선후기도 예외일수는 없었다. 조선후기는 ‘사대부의 나라’라는 표현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반 중심의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신분제 사회에서 반상이라는 신분의 구별은 계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경제적 불균등과 교육적 불균등으로 이어져 권력과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양산하였다.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존재한 것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계급간의 갈등양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분간의 갈등양상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망의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 증산의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sup>20)</sup>라는 교화는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반

15)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행록 5-38)

16) 윤재근·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제4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6쪽.

17) 한자경, 「욕망 세계의 실상과 그 너머로의 해탈」, 김종욱 엮음,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운주사, 2008), 60쪽.

18)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교법 3-24)

19) 상제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코피를 흘리시더니 갑철에게 관을 만들게 하고 감주 한 그릇을 잡수시니 곧 원기를 회복하셨도다. 이 때에 광찬과 갑철의 사이에 생긴 갈등을 상제께 아뢰니 벌써 알고 계시니라.(권지 2-26)

상의 구별'을 가리는 행위가 원망의 정감을 조성하며, 이것의 결과가 '조상의 뼈를 깎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반상의 구별이라는 것이 모두를 망하게 한다고 신분의 차별이 가지게 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직접적인 갈등양상은 아니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가지게 되는 원의 정감이 증폭되어 갈등양상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와 관습은 갈등상황을 야기하는 중요 동인이 된다. 신분제와 부의 세습,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제도와 관습에 기인한 차별과 억압은 계층간의 대립으로 이어져 민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sup>21)</sup> 제도와 관습에 기인한 불평등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과 분노, 좌절의 감정을 양산하며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인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가 있다면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평등'의 가치일 것이다.<sup>22)</sup> 증산은 양극화 현상이 만연하는 사회에서 갈등이나 원한의 발생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상생을 제시하였으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보편적 가치와 윤리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상생 이념을 기조로 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하였다.<sup>23)</sup>

증산은 갈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등 발생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전경』의 가르침을 통해 전하고 있다.

증산의 언설을 기록한 『전경』은 그를 따랐던 종도들과의 문답이 주를 이룬다. 그러기에 생생한 현장감이 담보되며, 또한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감들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오늘날을 삶에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전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갈등 양상은 다음과 같다.

20) 교법 1-9.

21) 윤재근·김영주, 「우리시대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역할과 전망」, 『종교교육학연구』제5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5쪽 참조.

22)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108쪽.

23) 윤재근·김영주, 앞의 글, 8쪽.

대순진리회에서는 “가정화목·사회화합·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이다.”(『대순지침』 20쪽)라는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의 훈시를 근거로 대순진리회의 평화사상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제반 교육사업을 종단의 3대 중요사업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이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사회적 실천을 의미한다.

〈표 3〉

| 절       | 내용 요약      | 절     | 내용 요약         |
|---------|------------|-------|---------------|
| 행록 3-2  | 분노         | 1-57  | 속임            |
| 3-7     | 욕설         | 1-58  | 노름            |
| 3-8     | 분쟁         | 1-59  | 바르게 일러줄 것     |
| 교운 1-40 | 음해         | 1-60  | 남의 누행을 말함.    |
| 교법 1-12 | 비방         | 1-64  | 억지로 구함        |
| 1-12    | 능욕         | 교법2-1 | 말로서 거슬리게 함.   |
| 1-17    | 배척         | 2-31  | 사나운 성정        |
| 1-20    | 비방         | 2-31  | 다툼            |
| 1-21    | 탐냄         | 2-44  | 미워함           |
| 1-27    | 헐뜯음        | 2-46  | 사색(死色)내지 말 것. |
| 1-28    | 오해         | 2-58  | 고르지 않은 식욕     |
| 1-28    | 구설         | 3-6   | 시비            |
| 1-28    | 시비         | 3-9   | 부러워 함.        |
| 1-38    | 유인         | 3-11  | 알아주기를 바람.     |
| 1-38    | 다툼         | 3-13  | 불평            |
| 1-38    | 천대         | 3-15  | 음해            |
| 1-38    | 탐냄         | 3-15  | 복수            |
| 1-40    | 불경         | 3-18  | 냉대            |
| 1-42    | 너그롭지 못한 성정 | 3-18  | 몰인정           |
| 1-53    | 싸움         | 3-24  | 욕망            |
| 1-55    | 트집         |       |               |

증산이 출생한 고부 지방은 민란과 동학혁명의 주요 발생지로서 지방 관리들에 의해 자행된 민생에 대한 착취가 극심했던 지역이다. 대개의 종교개창자들이 그러하듯이 증산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신분상으로는 양반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열악한 하층 계급이라는 신분의 이중성을 가진 증산이 성장 과정 속에서 체감한 현실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는 민중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기층 민중들과 동화된 삶 속에서 민중의 고통과 애환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갈등원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부족함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증산은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할 것’<sup>24)</sup>을 주문하였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가 존중의 대상이지, 차별의 대상이 아니므로, 인간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갈등양상은 관리

24) 교법 1-10.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민중들이 겪었던 갈등양상을 치유하기 위한 증산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감정에 기반한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는 욕망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갈등을 야기한다. 특히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sup>25)</sup>라는 증산의 언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욕망은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워진’ 물질만능주의의 폐단과 함께 여기서 비롯된 다양한 갈등현상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이라는 언설을 통해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이 빚어낸 인간성 상실의 문제와 갈등양상의 제모습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증산은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양상의 원인을 상극(相克)이라는 선천의 운행원리에서 찾고 있다. 인간이 품게 되는 욕망과 이를 기제로 나타나게 되는 사회갈등은 선천의 상극지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운행원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변혁을 꿈꾸던 민중들에게 상생이념을 근간으로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는 일련의 종교적 역사를 통해 후천선경이라는 종교적 이상사회가 건설될 수 있음을 설하였다. 천지공사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문제의 본연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 것이다.<sup>26)</sup> 인류가 지향하는 평화는 적극적 이타행인 상생의 삶이 실천될 때 가능한 것으로, 갈등으로 가득한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우주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IV. 갈등치유를 위한 수행으로서 훈회와 수칙

종교인들의 삶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수행이 된다. 종교행위로서의 수행이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 행하는 의례로서의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을 대하는 자세 모두가 수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순진리회의 훈회와 수칙은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수행의 덕목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내적 자기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상

25) 교법 1-1.

26) 윤재근·김영주, 앞의 글, 9쪽.

생활'에 방점을 둠으로써 종단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들을 준수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며, 신앙인들의 일상의 삶이 수행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증산의 수양론은 일반적인 범주의 수양의 의미를 넘어서 '후천의 바람직한 인간'으로 명시된 '인존'을 지향하는 수양론이다. 증산에 의해 명시된 후천의 새로운 인간상인 '인존'은 심(心)신(身)신(神)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존재태로서 심신(心身)의 균형과 신인(神人)의 조화를 근간으로 인간과 외계존재의 조화(調化)적 내용을 표명하고 있다.

증산은 인존을 통하여 인간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킬 것을 강조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sup>27)</sup>

인존을 천존과 지존보다 크다고 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가지는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증산은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며, 동서남북과 몸은 마음에 의지한다.”<sup>28)</sup>라고 하여 사람의 행동기능을 주관하는 것이 마음<sup>29)</sup>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 크다”<sup>30)</sup>고 하여 마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선악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선악을 구별하여 허물을 짓지 않게 경계하고, 지극한 선을 추구하기 위해 올바른 수양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마음은 천지보다도 큰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존은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을 해석한 것으로 자기완성을 이룬 인간이 천·지·인의 삼계구조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간상이다. 인존의 인간관에서는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고 이제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sup>31)</sup>라고 하여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새롭게 재편되는 우주질서 속에서 인간의 격을 하늘과 땅보다 높이 둠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망(人望)을 얻어야 신망(神望)에 오른다.”<sup>32)</sup>에 내재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인존시대의 새로운 윤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존은 인간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었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마음공부를 통한 자기완성이 요구된다. 마음공부는 수행과정 상의 특정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개념은 아니다. 마음은 단순히 성찰하는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 과정이 마음

27) 교법 2-56.

28)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교법2-5)

29)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15쪽.

30)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행록3-44)

31) 교법3-35.

32) 교법1-25.

공부가 된다.<sup>33)</sup> 그런 의미에서 인존의 실현은 일상생활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는 수행이 이루어질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수행을 위해 훈회와 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마음공부로서 훈회와 수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훈회와 수칙은 대순진리회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생활 자세를 규정하고 있다. 증산의 가르침에 대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훈회와 수칙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덕목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강조된다.

훈회는 총 다섯 가지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덕을 잘 가지라.
3. 척을 짓지 말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 남을 잘 되게 하라.

훈회는 증산의 가르침에 입각한 내용들로서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훈회의 생활화는 증산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를 지닌다.

수칙은 훈회의 내용을 생활화하기 용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목(細目)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수도인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수칙’이라 하여 도헌(道憲)<sup>34)</sup>에 명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제12조 도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준행하여 국민복에 기여하여야 함.
2. 삼강오륜은 음양합덕·만유조화 차제 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을 경례로써 섬기고, 수하를 애홀지도하고, 친우간에 신의로써 할 것.
3.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니, 양심을 속임과 흑세무민하는 언행과 비리괴려를 엄금함.
4. 언동으로써 남의 척을 짓지 말며, 후의로써 남의 호감을 얻을 것이요, 남이

33)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146쪽.

34) 대순진리회 도헌, 2장 도인의 권리 의무, 제12조.

나의 덕을 모름을 폐의치 말 것.

5.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수칙은 대순진리회의 신앙인이면 누구나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규정하고 있다. 수칙은 훈회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훈회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양심을 지켜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로 말의 덕을 베풀며, 내경위만 주장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며, 나를 있게 한 모든 존재의 은의에 감사하며,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해원상생·보은상생의 법리가 내재되어 있는 훈회와 수칙을 실천하는 방안이 된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규정이므로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사라질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인존사상이며, 평화사상이 되기 때문이다.<sup>35)</sup> 훈회와 수칙을 진실 되게 지키고 생활화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훈회와 수칙은 규범준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규범의 준수를 통해 어떤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규범준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방점이 주어져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전락할 수 있지만, 규범준수를 통한 존재의 형성은 내면의 성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수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이러한 갈등의 장 속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마음공부를 위한 실천방법이 필요하다. “천지 중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 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하나니”<sup>36)</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등을 맺고 푸는 모든 것이 개개인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원상생·보은상생에 기반한 훈회·수칙은 일상생활 속 마음공부를 위한 필수적인 실천방법이 된다. 훈회·수칙은 단순히 규범준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훈회와 수칙의 실천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종교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는 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원리가 실생활에서 발현되는 훈회·수칙의 실천은 증산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실천이다. 종교적 신념이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통해 구현되면서 신앙의 주체와 대상이 오롯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도덕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훈회와 수칙의 생활화는 일상생활 속 갈등양상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3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43쪽.

36) 교법 3-29.

## V. 나가며

갈등(葛藤)의 어원은 쑥과 등나무에서 기인한다. 국어사전에 “갈등이란 쑥과 등나무가 서로 얹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거나 대립충돌을 벌여 고민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하였다. 쑥과 등나무의 성질을 빗대어 설명한 것이 갈등이다. 쑥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오르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식물을 가까이 심어놓게 되면 서로 반대로 감으면서 오르게 된다. 이들을 풀어서 다시금 반대로 돌려놓아도 새롭게 자라는 줄기의 끝은 원래대로 돌아가 서로를 휘감으며 오르게 된다.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서로 감아 올라가면서 얹히고설켜 고사하게 되는 상극의 상황을 쑥과 등나무에서 목도하게 된다.

사회는 서로 다른 능력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역할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규범의 적절한 관리 속에서 순응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잠재된 갈등이 언제든 폭발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사회갈등은 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개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사회갈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내면갈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갈등은 해결하는 것이기보다는 관리하고 치유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듯하다.

갈등상황에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과 함께 내면에서 작용하는 요소가 함께한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내면의 갈등상황이 외부로 발현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종교는 내적인 부분들을 정화시키는 믿음(belief)의 힘이다.<sup>37)</sup> 신앙을 ‘생산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종교적 무관심과 불신 등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훈회수칙의 생활화는 신앙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한 부단한 자기노력이며, 증산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투영된 것으로 종교적으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37) Alfred North Whitehead, *Religion In The Making*, 김희현, 『진화하는 종교』 (서울: 기독교서회, 2012), 15쪽.

## 참고문헌

『전경』

『대순진리회 도헌』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제43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박규태, 「일본의 현대종교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신종교연구』제3권(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0)

서문기,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계층갈등」, 『국제지역연구』23권1호(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오창우, 「한국에서의 사회갈등 논의의 의미연결망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45호(서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유희정·이숙중,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윤재근, 「조선후기 종교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석」, 『종교교육학연구』제1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윤재근·김영주, 「우리시대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역할과 전망」, 『종교교육학연구』제52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윤재근·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제46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정영호·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221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한자경, 「육망 세계의 실상과 그 너머로의 해탈」, 김종욱 엮음, 『육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운주사, 2008) 제17집 1호(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6)

Alfred North Whitehead, *Religion In The Making*, 김희현, 『진화하는 종교』(서울: 기독교서회, 2012)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 2013.

YTN, 〈사회적 갈등 비용 연간 최대 246조원… 소통과 승복이 중요〉, 2017.3.7. 인터넷판.

---

원고접수일: 2018년 6월 15일, 심사일: 2018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9일

연구자 소개: 윤재근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③ 주요논저: 「근대 한국 신종교의 이상세계 관념과 종교민족주의」,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한국 신종교 경전의 문학적 요소」, 「대순사상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중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④ E-mail: jkyouun@daejin.ac.kr

연구자 소개: 김영주

① 전공: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② 관심영역: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③ 주요논저: 「증산 강일순의 신선사상」, 「다산 공부론에 있어 주체성 확보문제」, 「증산 수양론에 있어 욕망 해석의 문제」,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증산 수양론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④ E-mail: eureka0710@daejin.ac.kr

---

Abstract

## Conflict Healing and Religious Education on the Daesoongjinrihoi

Yun, Jae-Keun · Kim, Yeong-Joo

Daejin University

Conflicts in Korean society has been dealt with by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like politics, economics, administration and etc.

Therefore, to manage or to overcome any conflicts has been argued in the administrative or systemic factors.

Howev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human's mind should be considered first since the conflict is one of emotional factors which human has in pursuit of their own desire.

Otherwise, the approach to overcome the conflicts in the administrative and systemic is so questionable in reality.

The conflicts must leave a scars in human mind and our society because the state of conflicts in our mind is represented to our society.

So, the mental cultivations through a religious asceticism should be required in order to cultivate their own mentality and set up a new area to overcome the conflicts.

Most of the new religions have offered new critical mind and view of the world unlike the established religions. It means that they can give us new alternatives to overcome any of the conflicts in 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Religious education on the Daesoongjinrihoi for 'conflict healing' in a large frame of conflict and healing. In discussing conflict healing, we will first look a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flict of Jeungsan and discuss Precepts and Ethical Rules provided by the Daesoongjinrihoi as an exercise for conflict healing.

**Key words:** conflict healing, Religious education, Precepts, Ethical Rules